

# 생불꽃 연구

현 승 환\*

## 목 차

- I. 서론
- II. 생불꽃의 원초적 기능
- III. 신화의 꽃
- IV. 의례의 꽃
- V. 고소설의 꽃
- VI. 결론

## I. 서 론

고대문학에 나타나는 꽃은 여성을 상징하고, 재생과 부활에 관여하며, 생산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모란화가 선덕여왕을 비유한다거나 무가에서 꽃으로 인해 죽거나 재생을 이룩하게 되는 것들이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sup>1)</sup> 하지만 서사작품이든 서정작품이든 꽃은 여성이라는 전제하에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편향된 시각을 보이는 경향은 시정되어야 한다. 꽃이 무속에서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갖는 점을 감안하면 꽃은 인간의 탄생에 관여하고 있었지 여자의 탄생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었다. 무가에서 人世차지 경쟁을 위해 치르는 내기도 꽃을 피우는 것이다. 즉 꽃은 인간을 의미하며 꽃에 대한 경쟁은 바로 인간에 대한 경쟁을 의미한다. 인세차지경쟁 설화는 인간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처럼 중요시하는 꽃과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무속의례에서 꽃의 의미

\* 제주대 교수

1) 안영희, "고대인들에게 반영된 꽃의 의미", 『아세아여성연구』 제11집(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1972), pp.189~210.

를 밝히고, 그것이 고소설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밝히려 한다. 편무영은 불교문화권 하의 설화들을 대상으로 꽃은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라 하고 이는 불교 영향이며, 한국에서의 사고는 무불습합의 결과라고 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처럼 불교영향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다양한 논의를 수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 동아시아 권에서 꽃가꾸기 경쟁 화소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sup>3)</sup> 불교적 사고 보다는 무속적 사고 속에서 형성된 꽃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오늘날 행해지는 무속의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주도 무속 의례에는 심방이 꽃으로 아기의 성별을 판별하고, 잉태 여부를 판단하는 불도맞이라는 의례가 있다. 이 의례를 행할 때는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라는 신화가 노래불러진다. 심방의 말에 의하면 이공본풀이는 꽃뿌리이고, 삼승할망본풀이는 아기를 잉태시켜 주고 태어나게 하여 잘 길러주는 신이라 한다. ‘꽃의 뿌리’라는 의미의 이공본풀이는 꽃의 유래를 설명하는 신화이며 꽃은 자식을 잉태시키는 일을 한다.

심방들은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 굿을 할 때는 이 이공본풀이를 노래한다. 그러나 일단 아기가 탄생하고 나면 그 아기가 병들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삼승할망 본풀이를 노래하며 산신에게 기원한다.

산신은 삼줄, 삼불, 삼가르다, 삼신받는다 등에서 드러나듯이 삼신일 것이라 하고 그 기능은 포태를 시켜준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견해로는 生死禍福을 관장하는 山神의 내력담이라 하며 동북아시아의 많은 민족이 신앙하는 산신과 그 기능이 같다고도 한다.<sup>4)</sup> 또는 삼신은 巫神이라 하며 그 근거를 ㅍ를 뜻하는 알타이어 Kam, Sam에서 찾고 있다.<sup>5)</sup> 이는 산신 또는 삼신이라는 명칭에 의문점을 두고 그 근원을 살핀 결과이다. 그 외로 아이의 잉태와 출산을 담당하는 신이라는 기능을 중시하여 産神으로 말해지기도 한다.<sup>6)</sup> 또 다른 견해는 무속과 관련하여 제석본풀이에 나타나는 당금애기를 삼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7)</sup> 이는 신화

2) 편무영, “생물화를 통해 본 무불습합론”, 『비교민속학』 13집(비교민속학회, 1994), pp.573~603.

3)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pp.153~174.

4) 최남선, 『조선상식(풍속편)』(서울: 동명사, 1948), pp.44~45.

5)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연세대 출판부, 1975), p.317.

6) 김태곤, 『한국무속의 연구』(집문당, 1981), p.286.

에서 쌍둥이 세 아들을 낳은 여주인공 당금애기가 아이들을 보살피는 여신적 성격이 강조된 결과이다. 그 외로 삼신신앙의 기원을 단군신화와 관련하여 언급하기도 하지만<sup>8)</sup> 어느 것이든 산신은 잉태와 출산에 관여하는 신이며, 아이를 아프지 않게 하며 잘 자라도록 해 주는 신임을 알겠다.

제주도에서는 아기의 잉태와 출산을 관장하는 신을 삼승할망이라 하며 이 신은 생불꽃을 들고 다니며 포태를 준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신화가 본토에서는 전승되지 않아 비교를 통한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가에서 산신이 꽃을 들고 다니며 포태를 준다고 하는 것은 꽃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꽃은 이 외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능까지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대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의례와 그들의 문학 곧 신화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고대 소설 속의 꽃의 의미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인의 꽃에 대한 인식을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한국 문학에서 꽃의 원초적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변이되면서 전승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는 신화 속에 나타난 꽃의 의미를 밝히고, 그 의미가 의례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신앙민들에게 꽃의 주력을 확증하고 있는지를 보인다. 나아가서는 고대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서의 꽃의 의미를 밝혀 원초적 의미로서의 꽃과 변이된 꽃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추적하게 된다.

## II. 생불꽃의 원초적 기능

생불꽃은 생불과 꽃의 복합어이다. 생불이라는 말은 釋譜詳節에서 生佛이라는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인 듯 하고, 그 때의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님”을 의미한다고 한다.<sup>9)</sup>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생불의 의미이지만 무속에서는 생명, 또는 자식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제주도에서 노래 불려지는 본풀이에서 생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7)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문학사상사, 1980), p.72, p.88.

8) 최광식, 『여성문제연구소』11집(효성여대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pp.47~52.

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석보상절』 11권 13장(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관용구를 통해 그 의미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어역 : 필자)

- 나도 옥황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서서 열 다섯 십오세만 넘으면 생불 줄 덴 생불을 주고 해산시키려 덴 해산시키려 다닙니다.<sup>10)</sup>
- 우리 큰 며느리가 열다섯 십오세가 넘어도 생불이 없어 하고 있으니 생불을 주어 주시오.<sup>11)</sup>
- 할머니가 받은 꽃은 일월이 희롱합니다. 옥황상제님이 호적을 둘러 보면서 생불을 내리울 때 단명꽃에 진 얘기는 복단명을 합니다.<sup>12)</sup>
- 김정국과 비독 장귀를 두면서 놀이를 하다가 말을 함을 “우리가 근 삼십이 당하도록 혈육이 없으니 어서 사라나라에 영급있는 산으로 가서 기도를 드려 생불이나 보게” 하니<sup>13)</sup>
- 이젠, 김정국이 집으로 돌아오고 부인에게 말을 하는데, “임정국이 기도를 하여 생불을 타겠다고 합니다.”<sup>14)</sup>

위 예에서는 “생불을 주다, 생불이 없다, 생불을 내리우다, 생불을 보다, 생불을 타다” 등의 용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잉태를 주다, 자식이 없다, 자식을 내려주다, 자식을 보다, 자식을 따다”의 의미임을 알겠다. 즉 생불은 잉태 또는 자식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생불꽃은 잉태 또는 자식을 의미하는 꽃임을 말해 준다. 특히 “생불을 타다”는 표현은 생불꽃을 따다는 제주도식 표현방법으로 꽃을 따 오는 것이 자식의 잉태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꽃에 대한 고대인의 원초적 표현이 아닐까 한다.

앞서 생불을 살아계신 부처님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무속에서 잉태, 또는 잉태된 자식을 의미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불교에서 생불에 대한 인식과 민간신앙에서 생불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生佛을 살아계신 부처라 하든 부처의 탄생이라 하든 생불은 부처와 관련된 용

- 10)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p.131의 “나도 옥황도신에서 시상 인간으로 내려상 열다섯 시오세만 넘으면 생불 줄 덴 생불 주꼭 해복힐 덴 해복시키려 땡김네다.” 참조
- 11) 진성기, 위의 책, p.131의 “우리 큰매느리가 열다섯 시오세라 넘어도 생불이 엇언 호염시난 생불을 주어 줘서.” 참조
- 12) 진성기, 위의 책, p.138의 “할마님 받은 고장은 일월이 희롱힙네다. 옥황상제님이 호적을 둘러보명 생불을 느리울 때 단맹고장에 진 얘기는 복단맹을 홉네다.” 참조
- 13) 진성기, 위의 책, p.82의 “김정국광 비독장귀 두멍 노념을 호단, 말을 홉을 「우리가 근 삼십이 당하도록 일신 서륙이 엇이니 읍서 사라나라 영급호 산으로 강 수록들영 생불이나 보게, 호난」 참조
- 14) 진성기, 위의 책, p.83의 “이젠, 김정국이 집으로 돌아오고 부인네가 말을 홉을, 「임정국이 수록을 들영 생불을 타겐 호염쑈다.」” 참조

어인 듯하다. 하지만 무속에서는 잉태 또는 자식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교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무속에서는 꽃의 기능이 잉태나 부활로 나타나는데 이는 불교의 경우도 같다.

먼저 불교에서 꽃의 의미를 찾아본다. 세종의 정비(正妃)인 소헌왕비(昭憲王妃)가 승하하자 그 추천(追薦)을 위하여 세조가 편찬한 석가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읽고, 세조가 석가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로 지었다는 <월인천강지곡>에 석가의 잉태와 탄생에 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 其 14에 의하면,<sup>15)</sup> 석가모니가 되실 보살(聖善<善慧>)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중국 周昭王 25년 7월 15일 沸星이 돌을 시절에 현세에 내려오시는데, 여섯 어금니를 가진 흰 꼬끼리를 타시고 도솔궁을 내려와 摩耶夫人의 태 안으로 들어간다. 그 때 온 세계에 광명이 가득하였으며 諸天이 가득히 뒤따라 오며 天樂을 아뢰고 꽃을 뿌리니 현란하기 그지 없었다고 한다.

석가모니가 될 보살이 도솔천에 있다가 마야부인의 태 안으로 들어갈 때 諸天이 가득히 뒤따라 오며 天樂을 아뢰고 꽃을 뿌렸다는 것은 꽃의 힘으로 마야부인이 잉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꽃이 잉태의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이렇게 잉태된 석가모니는 다시 꽃의 힘을 빌어 출생하게 된다. 마야부인이 雲母寶車를 타시고 東山으로 구경 가실 때 三千國土가 진동하거늘 四天王이 수레를 끌고 梵天이 이 길을 잡아 無憂樹 밑으로 가니, 諸天이 꽃을 뿌리는데 無憂樹가 저절로 굽어 내려왔다. 부인이 오른 손으로 가지를 잡으시어 꽃을 꺾으려 하자, 보살이 부인의 오른 쪽 겨드랑이로 탄생하시니 큰 지혜의 광명이 十方世界를 비추었다. 세존이 탄생하시자 일곱 줄기의 七寶蓮花가 마치 수레바퀴처럼 솟아나 받드는데 이 갓난 세존이 잡아 주는 사람도 없이 蓮꽃을 디디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일곱 걸음씩 걸어다녔다<sup>16)</sup>고 한다.

諸天이 꽃을 뿌리는데 無憂樹가 저절로 굽어 내려오니, 마야부인이 오른 손으로 가지를 잡으시어 꽃을 꺾으려고 오른 손을 드는 순간 보살이 오른 쪽 겨드랑이로 탄생하였다는 것은 꽃의 도움으로 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출산의 기능이

15) 朴炳采, 『月印天江之曲』(上)(중판, 正音社, 1977), p.98

16) 朴炳采, 위의 책, p.104.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앞서 전제했듯이 꽃은 불교에서만 잉태, 출산의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무속신화에서도 꽃은 잉태와 출산의 기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잉태와 출산을 담당한다는 삼승할망 본풀이의 내용을<sup>17)</sup> 통하여 이를 확인해 본다.

아버지 동이용궁과 어머니 서이용궁에게서 동이용왕따님아가기가 태어났다. 자라면서 아버지 수염을 뽑고 담뱃대를 꺾고, 어머니 젖가슴을 잡아뜯는 등 죄를 지어 가니 아버지가 죽이기로 작정한다. 서이용궁어머니는 차마 죽일 수 없어 석함에 넣어 동해로 띄워 버릴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생불법(잉태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임박사이 임보루주 開門 開鐵하라>고 써서 동해로 띄우는데, 분만시키는 법을 미처 가르쳐 주지 못하고 보낸다. 물 아래도 3년 물 위에도 3년 떠 다니다가 처녀물가에 떠오르니 임박사가 발견하고 생불왕(産神)임을 알고 집으로 모셔간다. 임박사 부인에게 잉태를 주고 12달이 지나가도 해산시킬 수가 없어 동해용왕따님아가기는 처녀물가에서 울고 있었다. 부인이 죽게 되어 가니 임박사는 옥황상제에게 伸冤한다. 이 소식을 들은 옥황상제는 인간에서 착한 명진국따님아기를 선정, 시험해 보고 생불왕으로 들여 세운다.

그녀는 명진국으로 가다가 처녀물가에서 울고 있는 동이용왕따님아기를 만난다. 동이용왕따님아가기와 명진국따님아가기는 서로 생불왕 자리를 다투다가 옥황상제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한다. 옥황상제는 꽃가꾸기 경쟁을 하여 번성시키는 자가 생불왕이 되라고 한다. 꽃을 가꾼 결과 동이용왕따님의 꽃은 이슬어가므로 구삼승(아기를 잡아가고 죽은 영혼을 차지하는 신)이 되어 저승으로 가도록 하고 명진국따님의 꽃은 번성하므로 삼승할망이 되어 이승으로 가도록 한다. 이에 동이용왕따님아가기가 성을 내며 삼승할망이 낳아 준 아기를 잡아감으로써 원한을 갚겠다고 하므로 명진국따님아가기가 화해를 청하여 서로 작별잔을 나누고 헤어진다. 동이용왕따님아가기는 저승으로 가서 구삼승이 되고 명진국따님아가기는 이승으로 와서 삼승할망이 되어 <생불꽃> <환생꽃>을 쥐어 돌아다니며 인간에게 잉태를 주고 해산을 시켜주는 신이 된다.

여기서 꽃은 産神의 자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꽃가꾸기 경쟁을 하여 번성꽃을 피워야만 산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산신이 되면 그는 생불꽃, 환생꽃을 쥐어 돌아다니면서 잉태를 주고 해산을 시켜 준다. 즉 꽃의 기능은 자식의 점지·잉태·출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신화는 꽃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질적인 면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꽃의 역할은 마마신과의 갈등을 설명하는 마누라본풀이에서 나타난다. 삼승할망 본풀이는 산신이 되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삼승할망본과 마마신과의 갈등을 통해

1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pp.108~116.

## 생불꽃 연구

산신의 승리를 설명하는 마누라본으로 나온다. 두 신의 갈등을 드러내는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어역 필자)

어느 날 산신이 해산을 시킬 자손이 있어 서천강 다리를 건너 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마마신인 대별상과 마주쳤다. 산신은 공손히 꿇어앉아

“대별상님아 제가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준 자손에 고운 얼굴로 호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대별상은 듣지 않고 자손들의 고운 얼굴을 뒤옹박같이 만들어 놓았다. 산신은 화가 났다.

“대별상의 하는 것이 괘씸하구나. 나한테도 한번 굴복 사정(屈服事情)할 때가 있으리라.”

할머님이 생불꽃(生佛花)을 가져다가<sup>18)</sup> 대별상부인 서신국 마누라에게 유태(有胎)를 불러주니 한두 달이 지나고 열 달이 지나고 열 두 달이 넘어도 해복(解腹)을 못해 간다.<sup>19)</sup>

산신인 삼승할망은 생불꽃을 들고 마마신의 부인인 서신국마누라를 찾아가 잉태를 주어 두고 해산을 시켜주지 않는다. 12달이 지나가도 해산을 못해 죽어가는 아내 때문에 마마신인 대별상은 산신을 찾아가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었다. 산신은 그제야 부인의 허리를 손으로 세 번 쓸어 내려 해산시켜 준다. 여기서 꽃은 잉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썸이다.

이상에서 불교에서나 무속에서나 꽃은 잉태와 출산의 기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나 한반도에서 사람들은 꽃이 새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산시킨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오랜 연원을 갖고 있는 불교 설화나 무속에서 나타나는 생불꽃의 원초적 의미는 새 생명의 잉태·출산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같은 다원발생설에 근거한 인도나 한반도에서의 동일관념의 표출은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대지에 씨를 뿌리자 그것이 점점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실을 신화적 세계로 끌어들이어 상징화시킨 것이다. 꽃이 피었다가 수정되어 꽃이 떨어짐으로써 제공되는 열매는 새로운 씨를 만들어내게 된다. 마야부인이 석가를 잉태할 때 諸天이 꽃을 뿌렸다는 것은 꽃이 떨어짐으로써 새 열매 맺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마야부인이 굽어 내려온 無憂樹의 가치를 잡고 꽃을 꺾으려고 할 때 겨드랑이로 석가의 탄생을 말하는 것은 꽃이

18) 가져다가.

19) 현용준, 위의 책, p.120

떨어짐으로써 씨가 아닌 열매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속에서는 이처럼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꽃의 기능이 잉태와 출산에 있음은 앞에서 살핀 대로이다. 또한 '생불 탄다'라는 제주 방언이 '생불꽃을 탄다'를 의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생불은 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꽃은 곧 새 생명인 자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Ⅲ. 신화의 꽃

꽃은 잉태, 출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은 이를 부활시키기도 하고, 산 자를 복수하기도 한다. 『월인석보』 제8 상절부에 수록된 「안락궁태자경」과 같은 내용을 갖는 이공본풀이는 이러한 꽃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해 준다.

김진국의 아들이 원강도령과 원진국의 딸인 원강아미가 결혼하여 살고 있었다. 하루는 서천 꽃밭 꽃감관의 명을 받아 서천꽃밭으로 가는 도중 원강아미는 발병이 나서 따라 가지 못하고 김장자에게 종으로 팔린다. 이 때 원강아미는 임신 중이었다. 김장자의 청혼을 거절하면서 지내다가 원강아미는 아들을 낳고 '할락궁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는 자라면서 김장자에게 모진 고역을 당한다. 김장자 집을 도망쳐 아버지를 찾아 서천 꽃밭으로 가 버리자 김장자는 원강아미를 죽인다. 아버지를 만난 할락궁이는 서천 꽃밭에서 꽃을 꺾어 와 아버지의 지시대로 수레멸망악심꽃으로는 어머니 원수를 갚고, 도환생꽃으로는 어머니를 살려낸다. 이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어역 필자)

그것이 너의 어머니 삼대김 받은 물이다. 너의 어머니 원수를 갚으려면 수레멸망악심꽃을 내어줄 터이니 너의 어머니 원수를 갚고 환생꽃을 내어주면 너의 어머니를 살려오라. 이 꽃은 웃음웃을 꽃이라. 제인장자집에 가거든 「이 내 몸이 오늘날 죽어도 좋습니다다마는 장자집의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다 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해서 다 모이면 웃음웃을 꽃을 뿌리면 양친웃음이 벌어질 것이니, 그 때는 싸움싸울 꽃을 뿌리면 일가친척이 다 죽을 것이다.

그 때 장자집의 막내딸 얘기만 살려두었다가 「우리 어머니 죽여 던져둔 곳을 알려주면 안 죽이겠다」고 하여 어머니가 죽은 곳을 알려주면 환생꽃을 놓아 어머니를 살려오라.<sup>20)</sup>

20) 현용준, 앞의 책, pp.129~130.



원수를 갚기 위해 먼저 웃음웃을 꽃으로 웃기다가 싸움싸울 꽃으로 서로 싸우도록 하여 수레멸망악심꽃으로 멸족시킨다. 이본에 따라서는 가난할 꽃을 주어 가난하게 만들고<sup>21)</sup> 불붙는 꽃을 주어 불붙어 죽게 만들기도<sup>22)</sup> 한다. “방법은 꽃을 훌뿌리거나 놓는다고 하고 있다.

김장자 집에 돌아온 할락궁이는 부친의 지시대로 김장자의 일가친척들을 모아 김장자의 작은 딸만 살려두고 모두 패망을 시켰다. 작은 딸의 도움으로 어머니 시체를 찾아 살려내는 꽃은 도환생꽃이다. 살려내는 과정을 보면 먼저 흩어진 어머니의 뼈를 주워 모아 놓고 그 위에 뼈 오를 꽃, 살 오를 꽃, 오장육부 만들 꽃, 숨결 꽃 등을 놓아 죽냥희초리로 세 번을 후려친다. 어머니는 “이이고, 봄잠이라 너무 오래 잤구나”라며 일어난다. 꽃이 부활의 기능이 있음을 알겠다.

머리 끊어 청대밭(靑竹田)에 던져버리고 잔등은 끊어 흑대밭(黑竹田)에 던져버리고 무릎(膝) 끊어 청새밭에 던졌으니 어머니 뼈를 도리도리 모아놓고 도환생꽃을 놓으니 “아이, 봄잠(春眠)이라 오래도 잤지.” 머리 끊어, 어머니가 살아온다.

그 자리에 장제집 작은 딸아기 죽여두고 어멍국(母)을 인도(引導)하여 서천꽃밭(西天花田)으로 들어가, 그 때에 어머니 죽연 청대밭에 흑대밭(黑竹田)에 청새밭에 던졌던 법으로 청대(靑竹)같은 청사록 흑대 같은 흑사록 열두 풍문(十二風雲) 주는 법입니다.

그 때에 낸 법으로 대(竹) 한 줌 청새 한 줌 양손(兩手)에 들러 수레멸망 악심꽃이라고 합니다.<sup>23)</sup>(표준어역 필자)

어머니의 시체를 찾고 난 후 작은딸마저 죽이고 있으니 철저하게 복수한 셈이다. 할락궁이는 어머니가 죽은 곳을 찾아가 청대 밭에 던져진 머리, 흑대 밭에 던져진 허리, 청 띠밭에 던져진 무릎의 뼈를 모아 환생꽃을 놓아 살려내니 “봄잠이라 오래도 잤다.”며 살아난다.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표현이겠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머리, 허리, 무릎으로 3등분할 수 있으며 이들 결합이 곧 인간의 육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꽃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할락궁이가 복수하는 꽃의 이름은 수레멸망악심꽃이고, 그 기능은 죄인을 벌하는 것이었다. 이공본풀이에 의하면 어머니의 머리를 버려 두었던 청대밭, 허리를 버려 두었던 흑대밭, 무릎을 버려 두었던 청 띠밭의 세 곳에는 12풍운조화를 주는 사록[邪氣]이 있다. 바로 이 12풍운 조화

21) 진성기, 앞의 책, p.82

22) 진성기, 앞의 책, p.96.

23) 현용준, 앞의 책, pp.130~131.

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화이다. 웃음 웃을 꽃을 흩뿌렸을 때 양천대소하다가 죽게 되고, 싸움 싸울 꽃을 흩뿌리면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되는 것이다.

할락궁이는 어머니가 죽었던 그 자리에 제인장자의 딸을 죽여두고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꽃감관자리를 물려받아 살고 있으니<sup>24)</sup> 심방들이 굿할 때 쓰는 꽃의 주력은 아직도 꽃감관의 영향 하에 있다. 바로 이 꽃은 머리와 허리를 버렸던 대밭의 대와 무릎을 버렸던 띠밭의 띠 한 줍씩을 가리킨다. 이 꽃은 어머니를 죽인 원수들을 복수하는 꽃으로 수레멜망약심꽃이 되는 셈이다.

꽃의 부활의 기능은 제주도의 무속 신화 뿐만 아니라 본토의 바리데기 무가에서도 등장한다. 바리데기 무가는 무당이 모시는 무조신의 내력담이다. 무가 내용에 의하면 바리데기 부모인 왕과 왕비는 딸 여섯을 낳고 아들이기를 바라고 일곱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역시 딸이므로 화가 난 임금은 일곱째 공주인 바리데기를 버린다. 임금 부부는 자식을 버린 죄로 병들어 죽게 된다. 서천 서역국의 약물을 먹어야 산다는 말에도 6명의 딸은 약물을 구하러 나서지 않는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리데기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천서역국으로 가서 선녀의 도움으로 약수를 구해 와 부모를 살린다. 이 과정에서 회생수로 부모를 살려내기도 하고, 꽃으로 살려내기도 한다. 이 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꽃이다.

무산 선네(선녀)가 비리더기를 보니  
비리더기도 무산선네가 분명하더라  
한성봉에 올라가지구  
피사린 물이야 살 생길 물이야 숨 터진 물이야  
세 병을 너어서 오꼬름에 오롱조롱 끼어 차고  
피 살네 꼬(꽃)치야 살 살네 꼬치야 숨 살네 꼬들  
세번을 꺾어서 품에다가 품고<sup>25)</sup>

바리데기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피살리는 물, 살 생기는 물, 숨 터지는 물을 담고 옷 고름에 꿰어 차고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약수이다. 즉 죽은 자는 약수로 살려낼 수 있다는 표현이다. 그뿐 아니라 부모를 살리기 위해 꽃을 꺾어오고 있다. 피를 살리는 꽃, 살을 생기게 하는 꽃, 숨이 터지게 하는 꽃을 꺾어 품에 품고 와 부모를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다. 바리데기는 이 꽃을 꺾

24) 현용준, 『제주도 신화』(서문당, 1976), p.76.

25) 김태곤, 『황천무가연구』(창우사, 1966), pp.198~199.

## 생물학 연구

어 품에 품고 돌아와 상여에 실려 나가는 부모의 시체 위에 뿌림으로써 부모를 살려낸다. 대부분의 바리데기 서사무가는 약수를 이용하여 부모를 부활시키고 있으나 아래에 예를 든 '바리데기'는 꽃과 약수로 죽은 부모를 살려내고 있다. 이는 전승자들이 바리데기가 죽은 부모를 살려내기 위해 약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꽃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본토에서도 제주와 같이 꽃에 부활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 전승자들은 피를 살려내어 돌게 해야 되고, 뼈에 새 살이 돌아 올라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꽃이 한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바리데기 무가에서 임금 부부를 살려내는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

곽을 끌구 침판을 메고 보니  
영감 할마니 노닐갈길이 다 되었네  
피 쌀물을 치 풍구(풍고) 내리 풍구  
피 쌀 꽃을 치시구 내리시구  
야감지 치재구 내리재니  
뼈가 고림 매두(마다) 이세어 돌아들어  
살 살 물을 치풍구 내리 풍구  
살 생길 꽃을 치시구 내리시니  
살이 불그러미 살아 나오더라  
숨 터질 꼬를 치시구 내리시구  
야감지 치재구 내리재구  
숨터질 물을 이베다가 네무 아출루네니  
영감 할마니 한날 한시에 죽었다가 한 날 한시에 서풀치구 일어난다.<sup>26)</sup>

죽은 부모를 살려내는데 한 번은 물로, 한 번은 꽃으로 부모를 살려내고 있다. 한날 한시에 죽어 관 속에 누워 있는 부모에게 꽃을 내려치자 부모는 한날 한시에 살아난다. 칠공주(오기풀이)에 의하면 내용이 조금 다르나 역시 꽃으로 죽은 부모를 살려내고 있다. 하지만 이 바리데기는 안동, 영일, 서울, 해남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으나, 유독 안동의 바리데기에서만 피 살리는 꽃, 살 살리는 꽃, 숨 살리는 꽃이 등장하고 바리데기는 이 꽃을 쥐어 품에 품고 돌아와 상여에 실려 나가는 부모를 살려내고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피가 마르는 것이요, 살이 썩어 없어지는 것

26) 김태곤, 위의 책, p.202

이요, 숨을 못 쉬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소해 주는 것이 죽음에서 삶으로의 전이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고의 표현이라 하겠다.

무가는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준다. 여러 이본 중에서 七公主(오기 풀이)에 의하면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릴 약을 구하기 위해 서천 서역국에 가서 사 내를 만나 자식을 12씩 낳으며 살았는데도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루는 공주가 남편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꽃밭에 물을 주러 간다고 했다. 공주는 남편을 졸라 따라 가는데 짜죽짜죽 웃는 꽃이 있었다.

여보시오 이 고즈는 뭐이요

응, 그 고즈는 다치지 마시오 그 고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고집입니다.<sup>27)</sup>

이 말을 듣자 공주는 남편 몰래 슬쩍 꽃을 따서 허리춤에 넣었다. 조금 가니 다 른 꽃들이 있기에 공주는 다시 물었다. 그 꽃은 썩은 살을 되살려 내는 꽃이라고 했다. 공주는 그 꽃도 슬쩍 따서 감추었다. 조금 더 가니 이번에도 이상한 꽃이 나 타났다. 무슨 꽃이냐고 물었더니 일어나서 걷게 하는 꽃이라고 했다. 꽃은 죽은 사 람을 살려내고, 썩은 살을 되살려 내고, 일어나서 걷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꽃이 갖는 부활의 기능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상에서 꽃은 잉태와 출산을 담당할 뿐 아니라, 부활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활은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겠으나 이를 식물에 적용시킨다면 씨를 통한 부활이 된다. 한 알의 씨앗이 대지에 뿌려져 그 씨앗이 죽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이누베레가 죽고 난 후 비로소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것도<sup>28)</sup> 죽음은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는 신화적 사고의 표현이다. 농 경문화에서 죽음은 새 삶을 찾는 부활과 동일시 할 수 있음을 신화적 사고의 표현 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화에서는 꽃은 잉태출산을 의미하는 생불꽃 과 죽음부활을 의미하는 환생꽃으로 표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 두 의미는 동 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새 생명이 잉태되어 출산하는 것은 씨앗이 죽어 새 열매 를 맺는 것으로 사고의 변화를 의미한다.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나타난 식물의 부 활이 인간의 부활로 의미 확대된 것이 된다.

27) 김태곤, 위의 책, p.232

28) 王 彬, 『神話學入門』(金蘭出版社, 1980), pp.105~113.

## 산신꽃 연구

인태를 주는 꽃의 기능이 부활로 확대되면서 꽃은 다양한 의미변화를 겪게 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두 영역의 이동은 전승자들에게 각각의 세계가 별개의 세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꽃은 불 태워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sup>29)</sup> 말라죽게 하거나<sup>30)</sup> 배꼽이 빠지게 웃다가 서로 싸워 죽게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 수레멸망약심꽃이다.

이러한 사고의 확대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꽃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흩어진 뼈를 모아 뼈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므로 '뼈살을꽃'이 필요하고, 이어 '살오를꽃'과 '피살을꽃'으로 뼈 위에 살이 붙고 피가 통해야 하며, 오장육부를 만들 꽃으로 인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숨설꽃'으로 호흡을 하게 하고, 이어서 '말7를꽃(말하게 할 꽃)'으로 이야기를 하게 하면 봄잠이라 너무 오래 잤다며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다. 전승자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셈이다.

## IV. 의례의 꽃

앞에서 설명한 산신의 내력담인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의 무속 의례인 불도맞이에서 불러지는 신화이다. 불도맞이는 산신에게 기자하는 의례이다. 젓상을 차려 심방은 초감제부터 노래불러간다. 먼저 어린 아이의 사령을 저승으로 잡아가는 구삼승할망을 쫓아내는 치병의례를 한다. 앞의 산신신화에서 알 수 있듯듯이 산신인 명진국따님아기와 구삼승할망인 동해용왕따님아기는 이승과 저승의 아이를 관장하는 신들이었다. 불도맞이 의례에서 한 제차인 구삼승넘은 아기의 사령을 차지하는 구삼승할망을 쫓아내는 의례이다. 구삼승할망은 아기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구삼승할망이 오면 아기는 사망하게 되고, 이를 구축하면 아기가 살아나게 된다. 구삼승넘은 이러한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삼승할망을 쫓아내는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일이 된다.

구삼승넘을 하기 전에 먼저 구삼승할망에게 바칠 적삼, 치마, 걸랫배(아기 없는 멜빵)와 자그마한 아기 인형을 만들어 채롱에 넣어 둔다. 심방은 삼승할망상 앞에

29) 진성기, 앞의 책, p.81, p.96.

30) 진성기, 위의 책, p.95

앉아서 비념을 한 후, 구삼승할망상으로 돌아 앉아서 “구삼승할마님일랑 아기 엄마의 땀 든 적삼이랑 치마랑 걸레배랑 드릴 터이니, 이 자손에 재앙을 주려 말고 고이 돌아가십시오”라는 내용의 사설을 노래하고, 젓상의 재물을 각각 조금씩 채롱에 떠 넣는다. 이는 구삼승할망을 쫓아내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불도맞이는 아이의 잉태를 축원하고 기원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아기의 사령을 잡아가는 구삼승할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방은 구삼승할망을 쫓아내는 의례를 연극적 대사와 동작을 곁들여 실연한다.

심방은 “웁이지랑 웁이지랑” 하고 자장가를 부르며 인형을 낚힌 채롱을 흔든다. 채롱에 누운 아기는 구삼승할망이 관장하는 죽은 아이의 사령이다. 이는 아이의 잉태를 기원하는 곳판에서는 반갑지 않은 존재이다. 때문에 아이의 사령 관장신인 구삼승할망은 쫓아내야 한다. 이를 심방은 연극적으로 실연하는 것이다. 심방은 갑자기 인형을 낚힌 채롱을 들고 부엌으로 달려가 “조왕할마님, 나를 조금 숨겨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다. 하지만 집안의 운명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선한 신도 아닌 악한 신인 구삼승할망을 숨겨줄 리 없다. 심방은 곧 語聲을 바꾸어 “이 집안에 풍운 조화를 불러 주면서 나한테 숨겨달라고! 나쁜 년! 썩 나가거라! 나를 누구 줄 알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큰소리를 치며 버드나무 막대기로 솔뚝을 때리며 쫓아낸다. 그리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서 “아이고, 여기도 숨지 못하겠구나. 고팡(庫房)에 칠성님한테나 가서 숨겨주십시오 해야지” 하며 채롱을 든 채 고팡으로 달려가지만 역시 거절당한다. 이렇게 하여 오방토신, 성주신, 문신 등에 의해 축출되는 과정을 실연한다.

이러한 연극적 행위를 통해 구삼승할망을 쫓아내고 삼승할망만 모시게 된다. 삼승할망의 능력은 강화되고, 자식을 잉태하게 하는 생불꽃의 기능이 사악함이 제거된 상태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성스런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 생명의 탄생은 자식을 못 낳는 집안에서 바라는 최상의 소원일 것이다. 특히나 조상 제사를 모셔야 할 집안에서 아들을 기원하는 마음은 더 할 것이다. 심방은 이처럼 아이를 기원하는 집안에 잉태를 주기 위해 불도맞이 굿을 하고 잉태될 수 있음을 의례를 통해 보여준다.

「꽃담」은 신화와 의례를 통해 꽃이 생명의 씨이며 이를 팔고 삼으로써 잉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례로 삼승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산신이 된 내력이 있고, 이공본풀이에서는 이 산신이

## 산신꽃 연구

아이를 잉태시키는 기술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이들 신화에 따르면 이공신이 서천서역국에 살면서 서천꽃밭이라는 성스런 꽃밭을 가꾸고 있고, 여기에는 생불꽃, 뽕살울꽃(인간의 뽕을 만드는 꽃), 살살울꽃(살을 만드는 꽃), 환생꽃(사자를 소생시키는 꽃), 멜망꽃(사람을 죽게 하는 꽃) 등이 자라고 있다. 산신인 삼승할망은 이 꽃밭의 생불꽃, 환생꽃을 두 손에 들고 돌아다니면서 인간에게 잉태를 주고 해산시켜 준다. 꽃은 생명의 씨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신화에 근거하여 불도맛이의 켓상에는 제물 외로 동백꽃을 꺾은 사발을 두 개 올리고 굿을 시작한다. 동백꽃은 봉오리가 있는 것으로 사발에 쌀을 넣고 거기에 동백꽃 이파리가 대여섯개 붙은 가지를 몇 개 꽂아 놓은 것이다.

굿은 초감제부터 시작된다. 산신을 강림시켜서 제물을 권하고 비는 수록침과 질침이 끝나면 수레멜망악심꽃 꺾음 순서가 된다. 이 꽃은 어린 아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잡아가는 죽음의 신인 구삼승의 꽃이다. 이 꽃은 실제의 꽃이 아니라, 마른 띠를 한 줌 묶어 놓은 것이다.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 마른 풀로 대신한다. 심방은 켓상 위에 있던 수레멜망악심꽃을 들고 이를 하나하나 꺾어간다. 즉 죽음의 신이 주력을 부릴 수 있는 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구삼승냄에서 구삼승할망을 쫓아내고 제장을 성스럽게 하여 삼승할망이 잉태의 씨를 뿌릴 수 있게 하듯이 수레멜망악심꽃을 다 꺾고 생불꽃만 남기는 것이다. 이 일이 끝나면 꽃을 따는 꽃담으로 넘어간다.

이 순서가 되면 수심방이 이공본풀이를 노래 불러, 서천꽃밭에 생불꽃 환생꽃 등을 꽃감관이 가꾸고 있음을 해설하고, 꽃씨를 뿌리니 곧 순이 나 꽃이 피고 번성했음을 노래하면서 “접시만큼씩 대접만큼씩 꽃이 번성했구나. 이 꽃을 따다가 祭主에게 주고 싶는데, 꽃감관이 무서워 안 되겠다. 그리 말고 서천꽃밭 하녀를 달래어 꽃 따러 들어가자” 이렇게 노래하고 켓상 가까이 가서 떠는 시늉을 하며 동백꽃 사발을 만든다. 그리고는 “어, 참. 꽃밭에 들어가 보니 꽃감관이 깊은 잠에 들었더라”고 말하고는, 심방이 스스로 드러누워 꽃감관이 잠자는 시늉을 여러 가지로 해 보여 구경꾼을 웃긴 후, “이 기회에 꽃을 따 와야 하겠다”고 하면서 켓상 위의 꽃 사발을 떨리는 손으로 살짝 가져내어 숨기고, 제장을 뱅뱅 돌다가 祭主(부인) 앞에 가서 꽃을 사라고 하며 꽃사발을 내어 놓는다. 부인이 사발에 돈을 올리고 꽃을 한 가지 골라 뽑으면 심방은 그 꽃가지의 이파리랑 꽃봉오리가 달린 모습을 보고 잉태 여부를 점친다.

인간의 생명의 씨인 꽃을 훔쳐 와서 제주에게 주고 자식을 잉태하게 하는 주술적 의례를 통해 꽃이 잉태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삼승할망의 수레멜망악심꽃을 꺾는 의례를 통해 성스런 제장에서 구삼승할망을 축출시키는 과정을 보이고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멸망꽃의 주력을 제거함으로써 이승에서의 꽃은 새 생명 탄생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의례는 꽃은 생명의 씨이며, 산신이 이 씨를 여성에게 넘겨 주면 잉태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꽃은 생명을 잃게 하는 씨이기도 하다. 구삼승할망이 수레멜망악심꽃을 사용하면 아이들은 죽어 저승으로 가기 때문이다. 즉 꽃은 삶과 죽음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뿌리 곧 씨인 셈이다.

## V. 고소설의 꽃

구비문학은 전승되면서 전승자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그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문자가 발명되고 문헌에 정착되면서 전승되던 구비문학은 신화, 전설, 민담 등으로부터 기록문화화했다. 앞서 살았던 신화와 의례에서 제기되었던 꽃의 의미는 신화세계에 살고 있던 전승자들의 소박한 사고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면 허구적 사실이라는 소설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소설시대는 이미 신화적 사고의 편린만 남아있을 뿐 신화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에 밀려 나가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고소설에 나타난 생불꽃 즉 잉태와 관련된 꽃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고대인이 신화적 사고 속에서 관념했던 꽃의 의미가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문학의 소재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몇 개의 고소설을 대상으로 신화와 의례에서 드러나는 잉태의 의미가 어떤 변이양상을 보이는지 검토해 보려 한다. 꽃의 원초적 의미가 잉태만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까지 포함하게 됨에 따라 소설 속에 이러한 두 요소가 남아있는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 1. 薔花紅蓮傳

장화홍련전은 효종 때 평안도 철산 부사로 있던 실존인물 奎東屹이 겪은 실화



를 소설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 소설에는 장화의 출생 태몽을 설명하는 과정에 꽃이 등장한다.

가산은 녀너햐 별노이 그럴 것이 업스나 오작 슬하에 한낫 자식이 업슴으로 좌슈의 부부 미양 근심하더니 일일은 그 부인 중씨 몸이 곤뢰햐 버기에 의지햐 잠간 조으더니 문득 한 선관이 하늘로초츠 내려와 솟 한 송이를 쥘거날 부인이 바드려 홀즈음에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솟치 변햐 아름다운 선녀가 되야 부인의 품 속으로 들거늘 놀라 깨다르니 남가일몽이라 좌수를 청햐 몽스를 일으키 좌슈 우셔 같으디 우리의 무즈흙을 하늘이 가련이 녀이사 귀즈를 껴지햐시도다 햐며 셔로 깃거하더니 과연 그 달브터 티기 잇셔 십삭이 차미 문득 방안에 향취 진동햐며 한낫 아흔을 나오니 이에 남즈가 아니오 녀즈임으로....<sup>31)</sup>

이는 장화의 출생 태몽을 설명한 장화의 어머니 장씨의 꿈 이야기이다. 자식을 그리는 배좌수 집에 부인 장씨가 잠간 조는 사이에 하늘에서 선관이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주는데 부인이 이를 받으려 할 때 꽃이 변하여 아름다운 선녀가 되어 부인의 품 속으로 들어와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딸을 낳는다. 꽃은 잉태를 의미하면서 여성을 지칭하고 있다.

장화 홍련의 환생 장면에서도 꽃이 등장한다. 계모 허씨를 죽여 장화 홍련의 원혼을 위로한 후, 배좌수가 18세의 현숙한 부인을 재취하여 금슬이 화락하였는데, 어느 날 꿈을 꾸다.

일일은 좌슈 외당에서 잠을 일으키 못햐고 전전반측하더니 홀연 장화 형태 선명한 단장으로 들어와 지비햐야 왈 소네 팔자 괴구햐와 모친을 일즉 여의고 전상업원으로 분인한 계모를 만나 맛참너 허무한 루명을 짓고 부친 슬하에 떠나오니 그 지원극통흙을 익의지 못햐와 이 사연을 옥황상제괴 주달하온즉 상제 측은이 역기사 같으사디 너의 정상이 가공햐나 그 역시 너의 팔자라 누를 원망햐리오 그러는 너의 아비와 인간연분이 미진햐기로 너의를 다시 세상에 나가 부너지의를 너어 셔로 원을 풀게 햐노라 햐시니 그 의향을 알지 못햐는이다 햐며 눈물이 옷깃을 적시거늘 좌슈 돌너들어 붓잡고 반길 즈음에 돛의 울음소리에 깨다르니 무엇을 일어바린듯 여취여광햐야 심신을 덩치 못햐다가 너당에 들어간즉 부인 윤씨 또햐 잠자지 안코 무삼 뉘송이를 쥐엿거늘 그 사연을 물은디 윤씨 대왈 지금 잠이 들었더니 엇던 선녀 구름 속으로 내려와 련곳 두 송이를 주며 같으디 이것은 장화 홍련인디 인간에서 임미히 죽음으로 옥대의셔 불상히 녀이사 부인에게 껴지햐십이니 귀이 길너 영화를 만이 보소서 햐고 인햐야 간디 업거늘 놀라 쉼어본즉 이 솟이 여적이 쥐여 잇스며 향취가 집에 차니 참 이상햐외다 햐며 장화 홍련이란 사람은 엇던 사람인지 혹 아시나닛가 햐거늘 좌슈 이 말을 듣고 곱출

31) 『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永和出版社, 1961), pp.1~2.

본즉 그 꽃치 넘노라 반기는데 호지라 너을 다시 만난듯 눈물이 흘으는줄 씨앗지 못  
 하며 이에 운씨다려 전후 사연을 낫낫치 널리알 두 녀아 반다시 그디에게 티어날 징조  
 라 하며 서로 우스며 꽃출 옥병에 쓰자 장속에 너어두고 띠띠로 상디호미 슬픈 마암이  
 차차 삭아지더라 십삭이 츠미 비 불으기 유명호더니 급기 희산호니 과연 쌍너러라 좌  
 슈 그 아히를 보미 용모괴질이 옥을 아로삭인듯 꽃츰로 모은듯 선연 작약흠이 세상에  
 상이업시 그 런곳과 갓흔지라 좌슈부뷔 전일몽사를 생각호야 크게 이상이 녀이며 장  
 속에 꽃출 츠츰미 꽃치 간디 업는지라 가중 괴이히 녀여 너심에 해오디 이 꽃치 반다  
 시 화호야 두 녀아가 되야도다 호고 것거 같아디 너의 원혼이 되물 하늘이 가련이 너  
 이샤 다시 세상에 내려보너여 부녀의 정의를 맺게 호십이라 호고 일흠을 다시 장화 흥  
 년이라 호야 장중보옥갓치 길오더니.....<sup>32)</sup>

배좌수가 꿈을 꾸고 내당에 들어가니 부인 운씨 역시 꿈을 꾸었는데 어떤 선녀  
 가 장화와 흥련이라며 연꽃 두 송이를 주었다고 한다. 좌수가 보니 그 꽃이 부친  
 을 만나 반기는 듯 하니 반드시 부인 운씨에게 태어날 징조라 하며 꽃을 옥병에  
 꽂아 장 속에 넣어두고 때때로 살펴봤다. 10달이 지나 과연 두 딸을 낳자 장 속의  
 꽃을 찾았으나 그 꽃은 간데 온데 없었다. 꽃은 잉태의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녀가 건네 준 꽃은 여성을 상징하고 있다.

## 2. 金仁香傳

이야기 내용이 장화흥련전과 비슷하여 그 모방작이 아닌가 생각되는<sup>33)</sup> 김인향  
 전에는 계모의 학대에 못이겨 물에 빠져 죽은 인향과 인함을 인향의 약혼자 유성  
 윤이 다시 살려내고 있다. 그 방법은 죽은 인향 인함 형제의 시체에 회생수를 뿌  
 려 살려내는 것이다. 곧 약혼자 유성윤이 급제하여 한림이 되고 돌아와 인향의 회  
 생을 옥황상제에게 간절히 축원하자, 인향이 꿈에 나타나 옥황상제가 감동하여 회  
 생수를 내렸다 하며 약병을 준다. 꿈을 깨고 보니 과연 약병이 있는 지라, 그 회생  
 수를 시체에 뿌려 회생시키는 것이다. 그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즉시 인형과 같이 분묘를 헤치고 신체를 보니 몸과 얼굴이 조금도 썩지 아니하고  
 두 소저 지는 듯하거날 한림이 즉시 회생수를 뿌리니 얼마 후에 숨을 후유 쉬고 두 소  
 저 돌아눕는지라 한림이 일변 하인 등을 명하여 보교를 가져오라 하여 두 소저를 태워

32) 위의 책, pp.35~37.

33)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삼우사, 1975), pp.359~360.

## 생물꽃 연구

가지고 회불자승하며 집으로 돌아오니라<sup>34)</sup>

이처럼 회생수라는 약물을 사용하여 회생시키는 화소는 신화에서 꽃으로 회생시키는 것과 다르다. 앞서 살핀 대로 바리데기 신화에서 보면 피살될 물을 뿌리고 다시 피살될 꽃을 치거나, 살살릴 물을 뿌리고 다시 살 살릴 꽃을 치곤 한다.<sup>35)</sup> 이는 꽃의 呪力으로 살려내던 기능의 후대적 변이임이 틀림없겠다. 꽃으로 회생시키는 방법이 의학의 보급에 따라 황당함을 깨닫게 되자, 죽은 사람을 회생시키는 약물이 있음을 생각해 내게 되고, 그 약물을 회생수라 이름하여 바꾸어 놓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

### 3. 鄭乙善傳

鄭乙善傳에는 죽은 아내를 영묘한 구슬로 살려내는 화소가 나온다. 주인공 정을선이 연모한 추년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추년의 계모의 간계로 추년을 부정한 여자로 오인하여 정을선은 파혼을 한다. 추년은 억울한 누명을 참지 못하여 자살하고 마는데, 정을선이 과거에 급제하여 순무도어사가 되어 부임하자 추년의 순결을 알게 된다. 추년의 원혼을 달래니, 영혼은 자기를 살려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정을선이 그 가르침대로 어떤 묘한 구슬을 구해다가 뼈만 남은 추년을 살려내는데, 그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묘당 압 큰 나무 아러 혼 구슬 갖흔 거시 노혔시니 빗치 찬란하고 향취 응비호거늘  
이상이 녀겨 집어 몸의 감초고 이의묘당을 떠는 유모 부처를 다리고 산과 고기를 너머  
두로 츠지니 드러갈사록 첩첩한 산중이오 능히 사물을 불 길이 업는지라 홀일업서 이  
의산에 느려와 촌점을 츠자 밤을 지니고 익주로 도라와 쇼제 빈소로 드러그니 쇼제 반  
겨 월 상공이 약을 구하여 오시니잇가 어시 답왈 슬푸다 약도 못어더 오고 다만 형역  
만 허비하니이다 쇼제왈 상공의 몸의 괴이혼 광취 빗하니 무어슬 길의셔 엇지 아니  
시니잇가 어시왈 이상한 구슬이 잇기로 가져오니이다 쇼제왈 그것이 회생하는 구슬이  
니 첩이 살 때로소이다 하고 다시 말을 아니하니 어시 그 구슬을 쇼제의 옆히 노코 쇼  
제와 동침하여 자다가 놀는 쯤니 동방이 밝았는지라 이러는 보니 구슬 노혔던 곳의 살  
이 연지빗 갖치 니살랏거날 그제야 신기히 녀겨 유모를 불너 뵈고 구슬을 쇼제의 몸의  
구슬이니 불과 하로밤 사이의 살이 윤택하여 붉은 빗치 완연하고 옛얼굴이 시로온지라

34) 『김인향전(金仁香傳)』(永和出版社, 1961), p.30.

35) 김태곤, 앞의 책, p.202.

반기를 니끼지 못하여 익쥬 즈사의게 약을 구하여 일변 약물노 몸을 씻기고 약을 먹이니 즈연 환싱하여 인스를 찰이느니라 어시 회불자승하여....<sup>36)</sup>

여기에서 추년의 회생은 '회생하는 구슬'과 약물의 효과로 되어 있다. 그 영묘한 '회생하는 구슬'을 주워다가 떠만 남은 시체 옆에 붙여 놓고 동침하고 있더니 시체의 살이 연지 빛으로 되살아난 것을 보고 그 구슬의 효험을 알아, 그 구슬을 온몸에 굴리니 옛 육신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 위에 약물을 구하여다가 몸을 씻고 먹인 것은 2차적인 회생 치료이다. 이것은 의약 효능관념이 보급된 후의 첨가라 보아야 할 것이요, 1차적 회생의 효능은 그 구슬에 있다. 그러면 그 구슬이란 어떤 것인가? 그 구슬 같은 것은 묘당 앞 큰 나무 아래 떨어져 있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구슬 같은 것은 바로 그 나무의 열매라 볼 것이다. 이것은 꽃의 2차적 결실이니 꽃으로 인해 회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은 차사본풀이에서 연못에 빠뜨려 죽인 세 아들이 꽃으로 변하여 물 위에 떠돌다가 그것이 구슬로 변하여 과양생의 세 아들로 환생하여 태어나는 것과 같은 관념이다.<sup>37)</sup> 곧 꽃이 구슬로, 그 구슬이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사상이다. 그런데, 이 정을선전에는 그 구슬이 떠만 남은 시체의 살을 회생시키고 생명을 회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살 살울꽃' '환생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이시키고 있는 것이다. 곧 '살 살울꽃' '환생꽃'을 2차적 결실의 열매를 구슬로 상징시켜 그 기능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꽃이 사람의 생명을 회생시킨다는 사상의 모티프가 변화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게 한다.

#### 4. 梁山伯傳

양산백과 추양대의 애정 결연담으로 된 梁山伯傳에는 두 가지의 태몽이 나온다. 양산백의 출생 태몽은 옥황상제에게 득죄하여 쫓겨난 선동이 내려와 안기는 꿈으로 고소설 일반에 흔히 보이는 것이지만, 추양대의 출생 태몽은 꽃으로 되어 있다. 그 출생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36) 정을선전(鄭乙善傳): (永和出版社), 1961, p.20.

3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pp.225~274.

## 생명의 꽃 연구

부인이 일몽을 어드니 채운간으로 일위 선녀 홍삼취군으로 부인 압해 나아와 꽃가지를 주며 왕 이는 천상의 귀희니 부인은 잘 간수하소서 하거늘 부인이 뺏고져 하다가 문득 일진광풍에 뜻춘 다 떠러지고 가지만 있는지라 마음에 섭섭하여 가지를 들고 맥 맥해야 하더니 홀연 그 가지 변하여 명주되어 품에 들거날 놀라 깨다르니 침상일몽이라 그 밤에 공을 대하여 몽사를 말삼하고 서로 하례하여 왕 상천이 우리를 무자함을 어엿비 녀이사 귀자를 접지함이라도 하고 깃거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태기 잇서 십삭이 침상 일너를 생하니 공의 부위 남자 아님을 서운하나 남년간 처음 아해라 만심환회하여 아해를 보니 일척백옥이요 영귀발원하야 괴묘함이 보는 자로 하여금 사랑하염주 하더라<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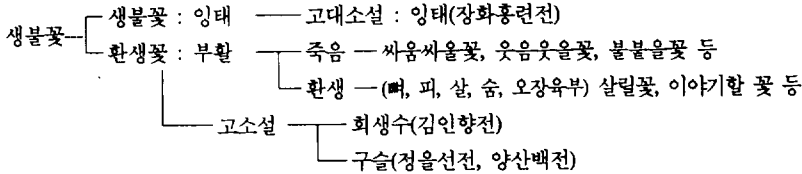
여기서는 선녀가 내려와 꽃가지를 주었는데, 그 꽃가지를 받으려는 찰라 바람에 꽃이 떨어지고 그 꽃이 구슬로 변하여 품에 안기는 꿈을 꾸고 영특한 미녀를 낳고 있다. 꽃이 떨어져 구슬로 변하였다 함은 꽃이 열매를 맺음을 상징한 것이요, 그 열매가 태아로 화하여 여아를 탄생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 꽃을 가지고 온 선녀는 그 꽃을 '天上의 琪花'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仙道思想에 의한 후대적 변화이고, 본래는 꽃이 생명의 씨앗이라는 '생불꽃'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여기 꽃이 구슬로 변하여 생명의 씨앗이 된 것은 상술한 차사본풀이에서 꽃이 구슬로 변하고 그 구슬이 태아가 되어 출생하는 것과 전혀 같은 모티프이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에 의하면 고소설에 나타난 꽃은 원초적 의미인 잉태에서 부활까지 신화적 사고의 편린을 엿볼 수 있었다. 장화홍련전에서 선녀가 꽃을 전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딸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는 꽃의 원초적 의미에 신선사상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신화에서 산신이 생불꽃을 들고 다니면서 잉태를 주고 출산을 시켜주던 관념이 신선사상의 영향으로 산신 대신에 선녀가 등장한 것이다.

꽃은 처음에는 남녀의 구별 없이 잉태를 주었다. 오히려 석가의 출생 설화에서 알 수 있듯듯이 꽃의 영향은 아들 탄생에 있었다. 하지만 이는 후대에 신선은 아들을 낳게 하고, 선녀는 딸을 낳게 한다고 인식되면서 달라졌다. 아들은 신선의 지시를 받아 童子가 부인에게 달려들어 잉태하게 되지만 선녀의 지시를 받아 女兒가 달려들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꽃을 주는 모티프로 바뀌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8) 『양산백전(梁山伯傳)』, (세창서관, 1935), p.3



## VI. 결 론

신화와 의례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선후의 문제는 지금도 확언할 수 없다. 하지만 신화는 의례를 통해 신의 능력이 보증되고, 의례는 신화를 통해 정당성이 입증된다. 구비전승되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생불꽃 화소에 대한 고대인의 관념을 추출하고 고소설에 투영된 꽃의 의미를 통시적으로 조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생불꽃의 원초적 의미는 잉태의 기능이 있었다. 이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며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신화적 사고의 표현이었다. 대지에 뿌린 씨에서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의 법칙이 인문사상에 적용된 논리가 바로 생불꽃 사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상은 불교와 무속이 동일하며, 이러한 사실은 꽃에 의한 인간의 탄생이 원초적 관념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2. 새 생명의 잉태는 자신은 죽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식물의 일생에서 차용한 신화적 상징의 표현이었다. 죽음은 새 삶을 이룬다는 자연의 법칙이 인간에 투영되면서 꽃이 지닌 잉태라는 원초적 의미가 부활에까지 의미 확대를 이룩했다. 이 공본풀이의 생불꽃, 환생꽃은 잉태가 곧 부활과 동일한 의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기자의례인 불도맛이를 통해 생불꽃이 잉태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과 부활을 동일시한 신화세계는 전승자들에게 투영될 때 죽음의 꽃인 수레말망아식꽃은 꺾어 없애버리고 부활의 꽃인 생불꽃으로 새 생명의 탄생을 기원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4. 꽃의 원초적 의미인 잉태의 기능이 신선사상과 결부되어 변이된 형태로 나타난 예를 장화홍련전에서 볼 수 있었다. 산신 대신에 선녀가 등장하여 꽃을 주어 잉태를 시키는데 이때 꽃은 여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또한 부활의 의미인 환생꽃이 고소설에서는 신화적 사고가 퇴색되면서 합리적 사고로 변화됨을 살폈다. 김인

## 생물꽃 연구

향전에서는 꽃이 아닌 회생수로 부활시키고, 정을선전에서는 열매로 상징되는 묘한 구슬이 1차 부활, 회생수가 2차 부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산백전에서도 꽃가지에서 꽃이 떨어져 구슬로 변한 것이 미녀를 낳는 동기가 되고 있는데 원초적 의미의 잉태가 아닌 2차적 결실로 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념은 차사본풀이에서 연못에 빠뜨려 죽인 세 아들이 꽃으로 변하였다가 2차적 결실인 구슬로 변하고 그 구슬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아 고대인의 생물꽃 사상에서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꽃에 대한 인식을 신화학적 방법을 적용시켜 논의하면서 신화와 소설을 동일 선상에서 논의한 것이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의 표상이라는 면을 감안하면 얼마간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다양한 의례를 통해 꽃의 의미를 검증하여야 하며, 산문만이 아니라 운문에도 적용시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